

# 구천상제론의 시각에서 본 천지공사의 실제와 교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이 경 원

대진대학교 · 교수

- |                 |                  |
|-----------------|------------------|
| I. 머리말          | IV. 천지공사의 교리적 의의 |
| II. 천지공사와 구천상제론 | V. 맺음말           |
| III. 천지공사의 실제   |                  |

## I. 머리말

대순진리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든다면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에 대한 이해이다. 신앙대상의 문제는 곧 신앙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실재에 대한 주제로서 모든 종교 형성의 근저에 해당한다. 『대순지침』에 따르면 도전께서는 “대순진리의 신앙을 바르게 깨쳐 나가도록 교화하라”는 훈시를 하셨고, 그 첫 번째 항목으로서 “강제하신 강증산께서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sup>1)</sup> 이에 따라 신앙대상의 역사적 실재는 바로 구한말의 대중교가로 활동한 강증산 성사(聖師)이시

---

1) 『대순지침』, p.17.

며, 증산의 신격이 곧 구천상제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종단의 신앙체계가 갖추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천상제론’이란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하나의 이론체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대상의 특성은 순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대상이 지닌 역사적 실재와 영원 무한한 신격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그 동질성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이는 결코 증산의 외면적인 특성에 국한될 수 없으며 역사적 실재로서 보여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그 본성이 곧 영원무한한 상제와 통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리라 본다. 그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체가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이다. 천지공사는 증산의 생애에서 보여준 구천상제로서의 대역사(大役事)에 해당하며, 강세하신 증산이 곧 구천상제이심을 신앙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천지공사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의 『전경(典經)』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으며, 총체적이고도 상징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요해가 쉽지 않다. 또한 장별로 나누어진 내용들이 서로 중복된 부분도 있고, 공사편이 아닌 다른 편에도 공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천상제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천지공사의 실재와 그 교리적 의의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천지공사’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나의 객관 학술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도 있으며 개별교단의 신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성과도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학자들의 학술적인 관심은 먼저 천지공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내용전체를 일정한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여기에는 유병덕, 이강오, 장병길, 김홍철, 노길명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유병덕은 천지공사에 대해 ‘후천세상의 모든 이법, 규범, 질서 등을 새로 규정하는 일’로 보았으며, 이 공사에는 신정(神政)정리(整理)공사, 세운(世運)공사, 교운(教運)공사 등 3대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sup>2)</sup> 이강오는 ‘세태가 험악하여

지는 원인을 발본색원하여 이를 적당히 조정하는 요령으로써 공사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천지공사의 3대 요강으로서 운도(運度)공사, 신명(神明)공사, 인도(人道)공사로 나눈다.<sup>3)</sup> 장병길은 천지공사를 천계·지계·인계로 나누고, 이 삼계의 변화, 운회(運回), 작용, 본질등에 관한 이치를 밝혀 앎으로써 모르고 지나는데서 저지르는 참상을 겪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sup>4)</sup> 김홍철은 '천지공사란 증산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중도들에게 가르치고 행한 여러 행적들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였으며, 신정정리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로 구분했다.<sup>5)</sup> 노길명은 "천지공사는 선천시대의 불합리한 운행질서, 이법 등을 타파하고 후천 선경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천지공사의 목적에 따라 운도공사 신도공사 인도공사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였다.<sup>6)</sup>

이외에 신앙적 관점에서 다룬 글에서는 증산의 신격과 그 절대성을 전제하고 천지공사를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름의 공사 분류를 하고 있다. 박상래는 증산이 조물주 하느님의 권능으로써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공정하게 천지공사를 행하였다고 하고, 지령을 통일하심, 교운의 실마리, 세계일가를 건설하심 등으로 주요 내용을 삼고 있다고 하였다.<sup>7)</sup> 배용덕은 천지공사가 '증산이 상제의 위치에서 천지의 신명들을 소집, 진법을 규정후 시행케 하는 일'이며, 총 열 세 분야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sup>8)</sup> 이상호는 『대순전경』에서 "선생께서 삼계를 주재하시 천지(天地)대신문(大神門)을 열고 만고 신명을 소

2) 유병덕, 『한국신흥종교』 (서울: 시인사, 1986), pp.108-109.

3)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p.208.

4) 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119.

5) 김홍철, 『증산교사상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0), pp.43-44.

6)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대구: 가톨릭신문사, 1988), pp.304-307 참조.

7) 박상래, 『한민족의 진로인 증산교좌표』 (서울: 경인출판사, 1986), pp.39-41.

8) 배용덕, 임영창 공저, 『증산신학개론』 (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82), p.51. (천지공사의 종류로는 기초공사, 동량공사, 개벽공사, 도수공사, 세운공사, 운회공사, 삼계공사, 명부공사, 사세(瀉世)공사, 광세공사, 신명공사, 인존공사, 해원공사 등이 있다.)

집하사 선천 기왕의 모든 비법(非法)을 개폐(改廢)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천도와 지의(地義)와 인사에 징취(徵取)하여 만세불체의 진법을 규정하신 후 천지신명으로 하여금 여율령 섭성(攝成)케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sup>9)</sup> 홍우는 천지공사에 대해 ‘천지개벽을 하시기 위한 도수를 짜신다는 뜻’으로 보고 ‘천지개벽이란 천지의 운로를 바꿔놓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천지공사를 각각 ‘천운공사, 명부공사, 신명공사, 지운공사, 세운공사, 조선국운공사, 인존공사, 해원공사’로 분류하였다.<sup>10)</sup> 이정립의 『대순철학』에서는 천지공사에 대해 ‘재래 종교가들은 단순한 관념의 표시로써 설교 또는 교훈에 의하여 교의를 수립하였지만 선생은 그 생평대업인 천지공사의 내용표시가 교의로써 수립된 것’이라고 하고, 신정정리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의 3대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였다.<sup>11)</sup>

천지공사를 주제로 다룬 박사논문에는 김탁, 염미양, 김태수 등의 글이 있다. 김탁은 천지공사를 일정한 공사사상이라는 체계로 분석하고 그 신앙적 특성으로는 “최고신신앙, 지상선경신앙, 실천적 개혁신앙, 조화신앙” 등이 있다고 보았다. 염미양은 증산이 초월적 절대자임을 전제하고 그 주된 사상이 되는 개혁사상을 증산역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sup>12)</sup> 김태수는 공사의 대상이 일상적 또는 현상적 범주를 넘어서 우주의 보이지 않는 현상 이면의 형이상학적 세계까지 확대됨으로 인하여 종교적 범주, 또는 초월적 범주로 규정된다고 하였다.<sup>13)</sup>

이상과 같은 연구성과는 저마다 연구자의 입장이 다르고 또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천지공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천지공사의 내용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기

9) 이상호, 『대순전경』 (상생사, 1929), pp.9-10.

10) 홍우, 『동학입문』 (서울: 일조각, 1974), pp.29-85.

11) 이정립, 『대순철학』 (서울: 증산교본부, 1947), pp.81-82.

12) 염미양, 「증산의 신비체험과 천지공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3) 김태수, 「천지공사에 나타난 의례적 성격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준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나름의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먼저 객관적 학술의 관점에서 쓰여진 글에서는 증산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천지공사’는 그저 증산의 종교적 표현이나 하나의 요령 혹은 이치에 대한 깨침 정도에서 머문다. 이 때 공사의 내용은 실질적인 공효보다는 하나의 추상적 관념이나 명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앙적 관점에서 쓴 글은 일단 증산의 신격과 그 절대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대순종단의 『전경』이 아닌 타 교단 자료로서의 『대순전경』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대순진리회 신앙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순종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대순진리회 신앙대상인 구천상제에 대한 기본 관점을 견지하고 그에 따른 『전경』 분석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실제와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천·지·인 삼계로 나누되 가급적 공사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각의 공사내용을 유사한 구절과 통합하여 유기적인 설명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천지공사와 구천상제론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기본관점을 제시하며, 이어서 『전경』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의 실체를 철저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천지공사의 역사 및 교리적 의의에 대해서 그 주요한 점을 들어 언급해보기로 하겠다.

## II. 천지공사와 구천상제론

대순진리회 신앙에 있어서 ‘천지공사(天地公事)’는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의 유일무이한 대역사(大役事)에 해당한다. 구천상제의 역사적(歷史的) 현신(顯身)은 강세하신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의 생애로부터 비롯되며, 이 때 천지공사는 인간 증산에 대한 신격(神格)적

인 이해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이러한 신앙적 관점은 대순진리회의 원전인 『대순지침』의 다음과 같은 정의에 입각해 있다.

(가) 강세하신 강증산(姜甌山)께서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나)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광구천하 · 광제창생으로 지상선경을 건설하시고자 인세에 강세(降世)하셔서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道)를 선포하셨다.<sup>14)</sup>

즉 구한말의 실존인물인 강증산은 최고신격의 소유자로서 구천상제이시며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창생을 구원하시고자 천하를 대순하다가 인세(人世)에 강림하시었다. 그 결과 상제의 천하대순(天下大巡)과 광구천하(匡救天下) · 광제창생(廣濟蒼生)의 기록은 모두 천지공사에 집약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제께서는 전무후무한 대순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순진리는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로 표현되고 있으며, 종지는 곧 대순진리로서 천지공사의 대체(大體)를 나타낸 것에 다름 아니다.

천지공사가 지닌 교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sup>15)</sup> 첫째는 이러한 천지공사는 오직 구천상제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 둘째는 천지공사가 한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점, 셋째는 천지공사가 인류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구천상제론의 시각에 따른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첫째의 항목이다. 천지공사의 대역사는 일반 범인(凡人)의 능력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 범위에 있어서도 ‘천지(天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만이 비로소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는 천지

14) 『대순지침』, p.17.

15)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2), pp.143-146 참조.

공사의 의미를 다루는 다음의 『전경』 구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16)

위의 전경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공사의 의의는 바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천지공사는 구천상제께서 지닌 위대한 능력으로써 집행된 것이므로 상제의 존재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천지공사와 구천상제는 마치 본체(本體)가 있으면 작용(作用)이 있는 것과 같이 본래적인 상제의 본체가 천지공사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과도 같다 하겠다.

구천상제론의 시각이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이심’을 전제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 강증산이 최고신격인 구천상제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역사적 인물로서의 증산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기록을 통해 그것이 최고신 구천상제의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할 때 입증된다. 이때 증산은 더 이상 인간적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최고신의 경지에서 일시적으로 현현한 상제의 화신(化身)에 해당한다. 구천상제는 곧 증산이라는 인간의 몸을 지녔지만 결코 인간의 한계에 머무를 수 없으며 한 인간의 몸으로 자유로운 상제의 무한한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신인(神人)이었다. 신인(神人)은 신과 인간의 이중적 형태이지만 언제나 최고신 상제에 정초되어 있는 활동하는 상제의 모습을 지칭한다.

---

16) 『전경』, 공사 1장 3절.

상제께서는 인간 강증산의 몸으로 활동할 때 이미 당시의 사람들로 부터 신이(神異)한 행적을 갖춘 신인으로 불려졌다.

상제께서 이곳에 며칠 머무시고 다시 계속하여 경기(京畿)· 황해(黃海)· 평안(平安)· 함경(咸鏡)· 경상(慶尙)도의 각지로 두루 유력하셨느니라. 어느 날 상제께서 전주부에 이르시니 부중 사람들이 상제를 신인으로 우러러 모시니라.<sup>17)</sup>

상제의 행적은 또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정작 상제의 본래적 신격(神格)과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당시에 없었다고 본다. 다만 상제로부터 덕을 입거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범인(凡人)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상제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인식적 한계 속에서 상제를 묘사할 뿐이었다. 상제의 참된 모습은 바로 ‘천지공사’의 대역사에 있다. 어떤 뛰어난 인간의 초능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가치를 지닌 상제의 고유한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이것은 상제만이 집행할 수 있는 초월적인 권능이므로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제께서는 당시에 ‘광인(狂人)’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리어졌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작업이 분명 상식적인 틀에서의 일이 될 수 없고 상제에 대한 철저한 신앙적 자각만이 이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천지공사는 기본적으로 ‘강세하신 강증산께서 구천상제이시다’라는 선언 하에 구천상제의 활동이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보아야 하며, 어떤 다른 관점 하에서 ‘천지공사’를 본다면 단순한 관념에 머물러버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천지공사는 하나의 활동적인 사실로서 구천상제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데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천지공사의 실질적인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7) 같은 책, 행록 2장 3절.



### Ⅲ. 천지공사의 실제

천지공사의 구체적 사실은 크게 삼계공사(三界公事)로 구분될 수 있다. 일찍이 상계계서는 천지공사를 삼계개벽공사라고 하였으며 이때 삼계는 곧 천계(天界)와 지계(地界), 인계(人界)이다.<sup>18)</sup> 여기에 천지공사 내용은 자연스럽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주요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천계공사(天界公事)

천계공사에서의 ‘천(天)’ 하늘은 비교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본래 ‘사람의 정수리’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하였다.<sup>19)</sup> 이후에 모든 사물의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영역’인 하늘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0)</sup> 그리고 뒤에는 마침내 ‘천’이 최고신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고대의 ‘제(帝)’와 같은 의미로도 본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천계’란 특별히 물리적인 하늘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신성한 영역에 대한 상징으로서 신(神)이 거주하는 세계의 단면을 나타낸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전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의 이름과 그에 관련된 공사내용은 모두 천계공사로 분류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

18) 기존에 장병길의 연구서 『천지공사론』의 삼계분류는 인기(人起), 천개(天開), 지벽(地闢)으로 나누고 그 대표적인 공사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같은 삼계분류는 이미 ‘삼계공사’라는 명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분석이므로 특별한 관점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본 논문 또한 이러한 삼계분류법을 채택하되 필자의 관점에서 천지공사의 포괄적인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19) 郭沫若, 『靑銅時代』(臺北: 文治出版社, 1945), pp.4-5.

20) 郭沫若, 『儒道天論發微』, p.11.

## 1) 명부공사(冥府公事)

구천상제의 천계공사에서 가장 먼저 집행된 것이 명부공사이다. 명부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불교 혹은 도교와 민속신앙에서는 명부시왕(冥府十王)이라고 하여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열명의 왕이 있음을 말한다.<sup>21)</sup> 특별히 명부공사를 먼저 집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전경』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 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22)</sup>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 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sup>23)</sup>

윗글에서 보면 신도(神道)는 기본적으로 인사(人事)의 근원이자 기틀이 된다. 보이는 현상세계의 모든 원인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形而上)적인 세계에 있다고 본다. 신도는 이러한 형이상적인 세계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현상세계의 부조리와 모순은 이미 신도의 무질서

21)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간 이승에서 머물다가 명부사자(冥府使者)의 인도로 명부로 간다고 믿는데, 이때 명부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한다는 열 명의 왕이 바로 명부시왕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광대왕(秦廣大王)·초강대왕(初江)·송제대왕(宋帝)·오관대왕(五官)·염라대왕(閻羅)·변성대왕(變成)·태산대왕(泰山)·평등대왕(平等)·도시대왕(都市)·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 혹은 전륜대왕) 등이 있다. 이중 다섯 번째인 염라대왕은 시왕 중의 우두머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22) 『전경』, 공사 1장 3절.

23) 같은 책, 공사 1장 5절.

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 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고 한 것은 명부가 곧 신도를 대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 명부를 조정하여 바로 잡음으로써 신도가 정리되고 나아가 인사가 저절로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신도 즉 명부에서는 무엇이 문제였고 또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가. 다음의 『전경』 구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sup>24)</sup>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 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sup>25)</sup>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sup>26)</sup>

명부의 가장 큰 문제는 즉 상극(相克) 도수(度數)에 지배되어 모든 신명과 창생이 재난을 겪고 비겁(否劫)에 쌓였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생의 원리에 의해 명부를 바꾸고 또한 앞으로 영원히 상생으로 지속되어 나감으로써 인사의 모든 현상도 이에

24) 같은 책, 예시 10절.

25) 같은 책, 공사 1장 7절.

26) 같은 책, 교법 1장 2절.

따라 상생의 낙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그 상징적인 작업으로서 상제께서는 먼저 각국 명부의 책임자를 임명하게 되는데, 전명숙 김일부 최수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인물의 생애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바로 ‘상생의 삶’에 있다. 왜냐하면 상생에 입각한 새로운 신도의 질서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책임자의 마음이 상생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명숙은 그의 역사에서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다’고 하여 상생의 삶을 살았다고 본다.

이처럼 천지공사에서 먼저 상제께서 명부공사를 천명(闡明)한 이유는 신도와 인사의 관계에서 보다 근원적인 측면의 조정과 정립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말단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 인간사회의 상극적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도의 질서를 상생으로 바꿈으로써 상호 연계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명부공사는 ‘천계공사’의 주요한 항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 2) 여러 신명(神明)에 대한 공사

천계공사의 주요한 내용은 다양한 신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신명은 곧 천지신명으로서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존재이다. 수없이 많은 신명에도 불구하고 『전경』에는 천계공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사의 주된 역할을 했던 몇몇의 신명이 알려져 있다. 그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소신에 대한 공사이다. ‘호소(好笑)’란 문자적으로 ‘웃기를 좋아한다’ ‘이주 우습다’ 등으로 풀이될 수 있다. 여기에 ‘호소신’이라고 하면 그러한 웃음을 유발하는 신이 있음을 말한다. 상제의 공사에서는 이러한 호소신이 와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병오년 정월 초사흘에 김 형렬과 김 성화의 부자와 김 보경의 부자와 김 광찬의 숙질이 동곡에서 상제를 시좌하고 상제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 동안 말도 아니 하고 담배도 끊고 있을 때 상제께서 이틀 후에 여러 종도를 둘러앉히고 당부하시기를 「오늘 호소신이 올 것이니 너희는 웃지 말라. 만일 너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웃으면 그 신명이 공사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갈 것이고 그가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니 깊이 명심하고 주의하라.」 종도들은 깊이 명심하고 조심하더니 갑자기 성백이 큰 웃음을 터뜨리니 모두 따라 웃은지라. 그날 오후에 성백은 별안간 오한을 일으켜 심히 고통하더니 사흘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노라니 상제께서 성백을 앞에 눕히고 글 한 절을 읽으시니 그가 바로 쾌유하였도다. 상제께서 날마다 백지에 그림 같은 약도와 글자를 써서 불사르셨도다.<sup>27)</sup>

둘째, 중천신(中天神)이 있다. 여기서 중천신은 ‘후사(後嗣)를 못 둔 신명’이다. 후사가 없으면 자손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언제나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중천신은 원한이 많다고 하였다. 상제의 해원공사는 이러한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또한 천계공사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중천신은 후사를 못 둔 신명 아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하셨도다.<sup>28)</sup>

셋째, 황극신(皇極神) 공사가 있다. 황극신은 본래 일국의 임금 또는 제왕에게 응기해 있는 신을 말한다. 상제의 천지공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황극신은 당시에 청국(淸國)의 광서제(光緒帝)에게 응기

27) 같은 책, 공사 1장 16절.

28) 같은 책, 공사 1장 29절.

하여 있다하고, 다시 조선국으로 건너와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 인연은 우암 송시열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결국 황극신이 한반도로 옮겨 왔음을 선언했을 때 광서제가 붕어(崩御)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황극신도 순수한 신명이름으로써 천계공사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상제께서 어느 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중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꾸려면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황극신은 청국 광서제(淸國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 우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중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에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sup>29)</sup>

넷째, 황천신(黃泉神)에 대한 공사이다. ‘황천(黃泉)’은 사람이 죽은 후에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특히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지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곳의 물이 황색이라는 데서 ‘황천’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이곳은 일종의 명부라고도 볼 수 있다. 상제의 천지공사에서는 이러한 황천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사 속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 후에 상제께서 응중이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니라. “황천신(黃泉神)이 이르니 황건역사(黃巾力士)의 숫대를 불사르리라” 하시고 갑철로 하여금 짙 한 줌을 물에 축여 잘라서 숫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화로에 불사르셨도다.<sup>30)</sup>

29) 같은 책, 공사 3장 22절.

30) 같은 책, 공사 3장 23절.

### 3) 태극(太極), 384효(爻), 28수(宿) 공사

천계공사의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신명에 대한 공사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구조 혹은 우주의 원리 등을 암시하는 내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 주요용어가 사용된 공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태극을 그리는 공사이다. 태극은 역(易)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적 진리이자 만물의 본원이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서 말하기를, “역(易)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음양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으며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는다”<sup>31)</sup>고 하여 만물 생성의 원리를 하나의 태극 진리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극은 동양철학에서 하나의 궁극적 실재이자 보편적 진리를 뜻하는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에서 이러한 태극을 수없이 그리면서 공사를 보시기도 하였다.

상제께서 남쪽을 향하여 누우시며 덕검에게 “내 몸에 파리가 앉지 못하게 잘 날리라”고 이르시고 잠에 드셨도다. 반 시간쯤 지나서 덕찬이 점심을 먹자고 부르기에 그는 상제의 분부가 있음을 알리고 가지 아니하니라. 덕찬이 “잠들어 계시니 팬찮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덕검이 파리를 멀리 쫓고 나가려고 일어서니 상제께서 문득 일어나 앉으시며 “너는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느냐. 공사를 보는 중에 그런 법이 없으니 번갈아 먹으라”고 꾸짖으셨도다. 이 공사를 끝내시고 상제께서 양지에 무수히 태극을 그리고 글자를 쓰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덕검에게 동도지(東桃枝)를 꺾어오라 하시며 태극을 세되 열 번째마다 동도지를 물고 세도록 이르시니 마흔아홉 개가 되니라. 상제께서 “맞았다. 만일 잘못 세었으면 큰일이 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동도지를 들고 큰 소리를 지르신 뒤에 그 문축(文軸)을 약방에서 불사르시니라. 그 후 상제께서 다시 양지에 용(龍) 자 한 자를 써

31) 『周易』, 繫辭, 上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서 덕검에게 “이것을 약방 우물에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그 종이 가 우물 속으로 가라앉았다.<sup>32)</sup>

둘째는 384효에 대한 공사가 있다. 이것은 태극원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주역』의 팔괘이론에서부터 64괘가 이어서 나오고, 다시 384효로 나뉘어서 해석된다. 상제의 천지공사에서는 이러한 역학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종의 천계공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는데 양지에 글을 많이 쓰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 양지를 자르게 한 후 차례로 한 쪽씩을 불사르시니 그 종이쪽지가 도합 三百八十三매라. 상제께서 그 수효가 모자라기에 이상히 여겨 두루 찾으시니 한 쪽이 요 밑에 끼어 있었다.<sup>33)</sup>

셋째는 28수(宿)에 관한 공사이다. 28수는 하늘의 28개 별자리를 말하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7개의 별이 배치된다.<sup>34)</sup> 이는 천구(天球)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된다. 전통 천문학에서는 이러한 별자리의 위치와 이동상태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하늘의 운세가 바뀌며 지상 또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28수에 대한 공사는 특별히 천계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상제께서는 류 찬명으로 하여금 두루마리 종이에 二十八수(宿) 자를 좌로부터 횡서하게 하시고 그 종이를 끊어서 자로 재니 한 자가 차거늘 이를 불사르셨도다.<sup>35)</sup>

32) 『전경』, 공사 3장 12절.

33) 같은 책, 공사 3장 25절.

34) 동쪽으로는 각(角)·항(亢)·저(氏)·방(房)·심(心)·미(尾)·기(箕), 서쪽으로는 규(奎)·루(婁)·위(胃)·묘(昴)·필(畢)·자(室)·삼(參), 남쪽으로는 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 북쪽으로는 두(斗)·우(牛)·여(如)·허(虛)·위(危)·실(室)·벽(壁)이 있다.

35) 『전경』, 공사 3장 24절.



이상으로 천계공사의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천계 공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편의상 『전경』에서 분류될 수 있는 것만을 중심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특히 ‘목은 하늘을 뜯어 고치는 공사’<sup>36)</sup> ‘천하의 중기를 파하는 공사’<sup>37)</sup>와 같은 것은 천계를 직접 구분해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아 별도의 분류는 생략하기로 한다.

## 2. 지계공사(地界公事)

천계에 이어 지계공사란 땅 혹은 유형적 사물을 근거로 한 공사를 말한다. 땅에는 모든 사물이 생성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물과 불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땅에는 그 고유한 기운이 있어서 모든 만물이 자라날 때 그 땅의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지계공사는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많은 지명(地名)과 지기(地氣), 수기(水氣), 화기(火氣) 등이 그 대상이 된다.

### 1) 지기(地氣)를 뽑는 공사

지기(地氣)란 땅에 존재하는 고유한 기운(氣運)이 있음을 말한다. 모든 땅은 그 장소가 지니는 특성이 있으며, 이것은 기운이 되어 그 주변의 만물을 생성하고 또한 인간사회에도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고 하여 유명한 인물도 그 지방의 땅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처럼 지기는 천기(天氣)와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것을 뽑거나 조화하여 어떤 이상적인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후천선경을 위한 주된 공사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찾아

36) 같은 책, 공사 1장 11절, 공사 3장 13절 참조.

37) 같은 책, 공사 1장 8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명한 산의 정기를 뽑아서 종합하는 공사이다. 이른바 사명당(四明堂)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제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명당은 당시에 네 곳의 산에 내재된 좋은 기운을 말한다. 이 기운을 뽑아서 각각 그 고유한 특성을 발휘시키고 또한 이 기운들이 하나로 합치될 때 비로소 대운(大運)이 열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사명당에 해당하는 산은 곧 순창(淳昌)지방의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형(五仙圍基形),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二十四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基形)이 있고 기변(基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양(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양(海王)이니라” 하시고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sup>38)</sup>

위의 공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산하에 잠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기를 선택하여 뽑는 방식이다. 먼저 부모산에 해당하는 산의 정기를 뽑고, 이어서 네 명당의 정기를 뽑아서 합친 뒤에 다시 산과 바다의 정기를 합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하(山河)의 모든 정기

38) 같은 책, 공사 3장 6절.

가 최대한 발휘되고 합쳐져서 하나의 통일된 문명을 이룩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네 명당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 회문산 오선위기가 선술(仙術)의 무병장수를 뜻하고, 승달산의 호승예불이 불법의 조화(造化)를 나타내고, 군신봉조는 곧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뜻하며, 선녀직금은 창생의 편의와 풍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천의 실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서 천하가 화평하고, 조화가 넘쳐나며 모든 사람이 불로불사하고, 지극히 풍요로운 선경세상이 건설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sup>39)</sup>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의 정기를 담고 있는 각각의 지형이 인간사회의 운세를 바꾸고 또한 새로운 역사전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네 명당의 지기는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용력(天文地理風雲造化八門遁甲六丁六甲智慧勇力)’을 발휘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sup>40)</sup> 또한 ‘오선위기형’이 발휘됨으로써 원(冤)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단주의 해원을 가져오고, 한국의 미래운세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sup>41)</sup> 그리고 ‘이마두를 초혼(招魂)하여 광주 무등산(光州無等山) 상제봉조(上帝奉詔)에 장사하고, 최수운을 초혼하여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 오선위기(五仙圍碁)에 장사한다’고 하여 역사적 인물의 사명이 지기와 합치됨을 알 수 있다.<sup>42)</sup>

둘째, 유명한 지방의 지기를 뽑아서 쓰는 공사가 있다. 지기는 산만이 아니라 특정 지방에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계공사에는 이러한 각 지방의 좋은 지기를 뽑아서 그 기운을 쓰는 과정도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먼저 순창 농암지역의 큰 기운을 뽑아 쓰는 공사가 있으며,<sup>43)</sup> 사기(沙器)를 전북 김제로 옮기는 공사,<sup>44)</sup> 충남 서천

39) 같은 책, 예시 80절, 81절 참조.

40) 같은 책, 행록 5장 21절.

41) 같은 책, 예시 28절 참조.

42) 같은 책, 예시 66절.

43) 같은 책, 공사 1장 27절, 공사 2장 13절 참조.

의 비인(庇仁)지방의 복종(覆鍾)형태의 혈을 놓고 복도수를 본 일,<sup>45)</sup> 전북 군산지역에서 공사를 본 일,<sup>46)</sup> 전북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을 ‘젓샘’이라고 한 일,<sup>47)</sup> 전북 태인 신방측에서 지기를 뽑는 공사를 행함으로써 동시에 일본의 강렬한 지기를 뽑았던 일,<sup>48)</sup> 금강산 공사를 봄으로써 그 겹기를 제거하고 장차 일만이천 도통군자를 창성하는 일<sup>49)</sup> 등이 있다. 이 모든 공사는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것으로서 지계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수기(水氣)를 돌리는 공사

지계공사의 주요내용에는 수기를 돌리는 것이 있다. 수기는 곧 물의 기운을 말한다. 물은 지상에서 생겨나고 또 지상을 흘러 다니면서 대지를 적시고 있다. 물의 상징은 그 자체로서 정화력과 재생력을 지닌 자연물로서 근원적인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sup>50)</sup> 이러한 물의 기운은 곧 천지공사에서 수기로 표현되고, 수기를 천하에 돌림으로써 지기와 결합이 되어 모든 기운이 발휘된다고 보았다.

또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에게 “태인 살포정 뒤에 호승예불(胡僧禮佛)을 써 주리니 역군(役軍)을 먹일 만한 술을 많이 빚어 놓으라” 이르시니라. 공우가 이르신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상제께서 “장사를 지내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종도들과 함께 술을 잡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상제께서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리라. 이 후에 수기가 돌 때에 땅 기운이 발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51)</sup>

44) 같은 책, 공사 2장 14절.

45) 같은 책, 공사 3장 11절.

46) 같은 책, 공사 3장 30절.

47) 같은 책, 예시 45절.

48) 같은 책, 공사 3장 31절.

49) 같은 책, 공사 2장 13절, 14절, 15절, 예시 45절 참조.

50) 이경원, 앞의 책, pp.147-148.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수기가 도는 것은 땅기운을 발휘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물기운 즉 수기가 돌지 않기 때문이다. 천하에 물기운이 고갈되었으므로 이러한 수기를 돌리는 공사를 통해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고 또한 새로운 선경세계를 건설하게 된다고 본다.<sup>52)</sup> 이와 관련하여 “김제 만경(金提萬頃) 들판으로 운암강(雲岩江) 물을 돌려 대한불갈(大旱不渴)이 됴므로써 전북(全北) 칠읍(七邑)에 흉년을 없앤다”<sup>53)</sup>고 하신 것도 이러한 수기공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 3) 화기(火氣)를 묻는 공사

수기를 돌리는 공사와 병행하여 불의 기운 즉 화기는 반대로 땅에 묻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매화(埋火)공사 혹은 화둔(火遁)공사라고 한다. 불의 상징은 그 특성상 파괴를 통한 용해, 순화, 재생의 뜻을 지닌다고 본다.<sup>54)</sup> 이 가운데 특히 불이 지나치게 활동하면 그 파괴적인 작용으로 인해 지상에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생을 구제하기 위한 공사는 먼저 이러한 불을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55)</sup> 지계공사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이렇게 불의 기운을 묻는 공사가 있다.

상제께서 무신년 봄 백암리 김 경학·최 창조의 두 집으로 왕래하시며 성복제와 매화(埋火) 공사를 보셨도다. 김 광찬의 양모의 성복제가 최 창조의 집에서 거행되었느니라. 창조는 상제의 지시에 좃아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그 고기에 계란을 입혀 전을 만들고 대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곳에 두고 또 상제의 분

51) 『진경』, 공사 3장 20절.

52) 같은 책, 공사 3장 21절.

53) 같은 책, 공사 1장 28절.

54) 이경원, 앞의 책, p.148.

55) 『진경』, 교운 1장 61절.

부에 따라 상제의 의복 한 벌을 지어 두었도다. 저육전이 다 썩었으므로 창조가 동곡으로 사람을 보내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그 사람을 좀 기다리게 하시고 형렬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태인에 가서 최 내경·신 경원을 데리고 창조의 집에 가라. 오늘 밤에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정문밖에 한 사람이 없드릴 만한 구덩이를 파고 나의 옷을 세 사람이 한 가지씩 입고 그 구덩이 앞에 청수 한 그릇과 화로를 놓고 작은 사기그릇에 호주를 넣고 문어 전복 두부를 각각 그릇에 담아 그 앞에 놓아라. 그리고 한 사람은 저육전 한 점씩을 집어서 청수와 화로 위로 넘기고 한 사람은 연달아 넘긴 것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다시 받아서 구덩이 속에 넣고 흠으로 덮어라. 그리고 빨리 돌아오너라」고 일러주시니 형렬이 그대로 시행한 후 시급히 상제께 돌아가는 길에 돌연히 검은 구름이 일더니 집에 이르자 폭우가 쏟아지고 뇌전이 크게 치는지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때쯤 일을 행할 때가 되었겠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행할 그 시간이 되었겠나이다」고 여쭙었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뒷날 변산 같은 큰 불덩이로 이 세계가 타 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묻었노라」 하셨도다.<sup>56)</sup>

여기서 불을 묻는다 함은 불이 지닌 파괴적 본성을 잠재우고 대신에 새로운 재생이 가능하게끔 도수를 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천지공사를 통해 주어지는 후천개벽의 과정은 일종의 파괴적인 종말을 상징하기보다는 순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현상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외에도 불을 묻는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는 이제 七十二둔으로써 화둔을 트니 나는 곧 삼이화(三離火)니라”<sup>57)</sup>라고 한 것, ‘매화 공사를 행하고 사십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신 일’<sup>58)</sup>, ‘종도 김형렬에게 화둔을 쓴다고 하고 집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단속한 일’<sup>59)</sup> “날마다 바람이 불다가 그치고 학담으로 넘

56) 같은 책, 공사 3장 1절.

57) 같은 책, 예시 20절.

58) 같은 책, 공사 3장 29절.

59) 같은 책, 공사 1장 23절.

어가니 사람이 많이 죽을까 염려하여 이제 화둔(火遁)을 물었다”<sup>60</sup>)고 하신 일 등이 있다.

### 3. 인계공사(人界公事)

인계에 관한 공사는 주로 인간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거나 인물중심의 해원공사 혹은 국가와 민족에 관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다루었던 천계공사와 지계공사에 비해 인계공사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며 공사를 통해 미래의 사회적 변화를 예시하는 의미가 있다.

#### 1) 인물에 관한 해원공사

인계공사의 대표가 되는 것에는 역사적인 특정인물을 예로 들어 공사를 처결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인물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신명계에서 원을 품고 있으므로 신도로부터 원을 푸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명숙과 최수운의 해원공사이다. 전명숙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부민란을 주도한 역사적 인물이다. 일찍이 상제께서는 “전 명숙은 만고 명장이라. 백의 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도다”<sup>61</sup>)라고 하고,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sup>62</sup>)고 하여 전명숙의 봉기 정신을 높이 평가

---

60) 같은 책, 교운 1장 61절.

61) 같은 책, 공사 1장 34절.

62) 같은 책, 교법 1장 2절.

하고 있다. 또한 최수운에 대해서는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sup>63)</sup>고 하고,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sup>64)</sup>, “최 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sup>65)</sup> “최 수운을 초혼하여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 오선위기(五仙圍基)에 장사하노라”<sup>66)</sup>고 하여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전명숙과 최수운은 천지공사의 주요인물로서 인계공사의 주된 예라고 할 수 있다.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사명기(司命旗)를 세워 전 명숙과 최 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상제께서 피노리(避老里) 이 화춘(李化春)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녀 장을 청 흥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 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司命旗)가 없어서 포한(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 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sup>67)</sup>

아울러 전명숙과 최수운에 관한 해원공사는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서 ‘동학(東學)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인데, 여기서는 동학난을 통해 봉기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왕후장상을 바라다고 소원을 이루

63) 같은 책, 예시 1절.

64) 같은 책, 공사 1장 7절

65)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66) 같은 책, 예시 66절.

67) 같은 책, 공사 3장 2절.



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 만 명이므로 원한이 창천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원두목을 당시의 종도 차경석으로 정하고 왕후장상의 해원이 되게끔 한 것이다.<sup>68)</sup>

둘째, 진묵과 이마두에 대한 해원공사가 있다. 『전경』에 의하면 상제께서 특별히 “진묵(震默)을 불교(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sup>69)</sup>고 하여 진묵과 이마두는 각각 불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특별히 진묵에 대해서는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sup>70)</sup>고 하시고, 진묵의 초혼(招魂)공사를 보았다.<sup>71)</sup> 또한 이마두에 대해서도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sup>72)</sup>고 하여 문명계발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마두도 인계공사에 포함되었는데 즉 “이마두를 초혼하여 광주 무등산(光州無等山) 상제봉조(上帝奉詔)에 장사”<sup>73)</sup>한 것이 그것이다.

셋째, 최익현과 박영효의 원을 풀어주는 공사를 하였다. 최익현은 상제께서 “일심의 힘이 크니라”<sup>74)</sup> “최 익현의 거사로써 천지신명이 크게 움직인 것은 오로지 그 혈성의 감동에 인함이나 그의 재질이 대

68) 같은 책, 공사 2장 19절.

69)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70) 같은 책, 권지 2장 37절.

71) 같은 책, 공사 1장 14절, 15절 참조.

72) 같은 책, 교운 1장 9절.

73) 같은 책, 예시 66절.

74) 같은 책, 교법 3장 20절.

사를 감당치 못할 것이고 한재까지 겹쳤으니 무고한 생민의 생명만을 잃을 것이니라. 때는 실로 홍망의 기로이라 의병을 거두고 민족의 활로를 열었느니라”<sup>75)</sup>고 하여 그의 혈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박영효는 당시 개화사상가로서 1884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주체로 활동하였는데, 자주적인 개화에 실패한데 대해서 상제께서는 최익현과 함께 그의 원을 풀어주신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일월 최 익현 천포 천포 천천포 만포 만포 만만포 창생 박 영효(千歲千歲千千歲 萬歲萬歲萬萬歲 日月崔益鉉 千胞千胞千千胞 萬胞萬胞萬萬胞 蒼生朴泳孝)라 쓰시고 불사르셨다.”<sup>76)</sup>

넷째, 고대의 인물에 대한 해원공사가 있다. 그 대표적 인물로서는 단주(丹朱), 이윤(伊尹), 진시황(秦始皇) 등이 있다. 단주는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sup>77)</sup>고 하고,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sup>78)</sup>고 하여 해원공사를 처결하였다. 이윤(伊尹)에 대해서는 “이윤(伊尹)이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성탕(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샷틈없이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sup>79)</sup>고 하셨다. 한편 진시황에 대

75) 같은 책, 공사 1장 24절.

76) 같은 책, 공사 2장 22절.

77) 같은 책, 공사 3장 4절.

78) 같은 책, 공사 2장 3절.

79) 같은 책, 공사 3장 37절.

해서는 “...한 권의 책명을 「의약복서 종수지문(醫藥卜筮 種樹之文)」이라 쓰시고 「진시황(秦始皇)의 해원 도수이니라」 하시고 한 권을 신 원일의 집 뒷산에 묻고 또 한 권을 황 응종의 집 뒤에 묻으심으로써 공사를 처결하였다.<sup>80)</sup>

## 2) 여러 나라와 민족에 관한 해원공사

인계공사의 분야에는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국가와 민족은 그 인간 구성원이 모여서 이루어지므로 국가 민족의 해원은 곧 인간계의 해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는 시점에는 많은 주변 국가들이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각 축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국내사정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민중들은 저마다 나아갈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였으며, 지배층의 정치인들은 자주적인 힘을 잃어서 국권을 침탈당할 위기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상제의 천지공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민족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의 운명까지 두루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세력을 지키는 공사이다. 당시에 동양은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 날로 서양세력의 동양침탈은 거세어저만 가고 조선뿐만 아니라 대국(大國)으로서의 중국 또한 국세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이러한 동양의 정세가 서양세력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으며, 동양의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공사를 보시게 되었다. 즉 상제께서는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깊이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일로 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sup>81)</sup>고 말씀하셨

80) 같은 책, 공사 3장 17절.

으며, “이제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四十九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러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sup>82)</sup>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행하였다.

둘째, 근대 중국에 관한 공사이다. 중국은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사이에서 많은 수난을 겪었고 또한 서양 세력의 침탈로 인해 민중들의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이 때 중국의 향방에 대해서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사를 처결하시었다.

상제께서 원일과 덕겸에게 「너희 두 사람이 덕겸의 작은 방에서 이례를 한 도수로 삼고 문밖에 나오지 말고 중국 일을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희의 처결로써 중국 일을 결정하리라」 이르시니 두 사람이 명하신 곳에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생각하였도다. 이렛날에 원일이 불려가서 상제께 「청국은 정치를 그릇되게 하므로 열국의 침략을 면치 못하며 백성이 의지할 곳을 잃었나이다. 고서(古書)에 천여불취 반수기양(天與不取反受其殃)이라 하였으니 상제의 무소불능하신 권능으로 중국의 제위에 오르셔서 백성을 건지소서. 지금이 기회인 줄 아니이다」고 여쭙어도 상제께서 대답이 없으셨도다. 덕겸은 이례 동안 아무런 요령조차 얻지 못하였도다. 상제께서 「너는 어떠한뇨」 하고 물으시는 말씀에 별안간 생각이 떠올라 여쭙는지라. 「세계에 비할 수 없는 물중지대(物衆地大)와 예악문물(禮樂文物)의 대중화(大中華)의 산하(山河)와 백성이 이적(夷狄...오랑캐)의 칭호를 받는 청(淸)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한이 없겠나이까. 이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하심이 옳으리라 생각하나이다」 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기를 「네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도다. 이 처결로써 중국이 회복하리라」 하시니라.<sup>83)</sup>

즉 중국은 예로부터 물중지대이고 예악문물이 구비된 대중화(大中華)의 나라인데 만주족인 청나라에 지배되어 근대의 혼란을 겪고 있

81) 같은 책, 예시 23절.

82) 같은 책, 예시 24절. 이외에도 공사 1장 12절, 공사 1장 13절, 공사 2장 21절 등이 모두 동양의 세력을 서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

83) 같은 책, 공사 3장 18절.

으므로 본래의 중국민족이 국가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고 본다. 이것이 또한 중국민족의 원한을 푸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원이 위주가 된 천지공사에 부합된다고 본 것이다. 상제께서는 이와 같이 중국민족과 그 국가회복에 대해서 공사를 봄으로써 인계공사의 주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일본에 관한 공사이다. 일본은 조선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국가이다. 근대에 접어들어 조선을 침탈하고 만주로 진출하면서 동양 전체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공사를 보시게 되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 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노니 잘 지키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sup>84)</sup>

즉 일본은 일시에 천하통일지기를 가지고 동양의 세력을 붙잡는 역할을 하게 되고, 조선을 잠시 위탁하는 나라에 해당한다. 이어서 일본은 일만 할 뿐이고 돌아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간다고 하였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인이 백호 기운을 띠고 왔으니 숙호 충비(宿虎衝鼻)하면 해(害)를 받으리라. 그들을 사사로운 일로는 너무 비위를 거스르지 말라. 범이 새끼친 곳은 그 부근 마을까지 돌보아준다

84) 같은 책, 공사 2장 4절.

고 하니 이것이 바로 피란하는 길이로다. 청룡이 동하면 백호는 곧 물러가느니라.”고 하여 장차 일본의 역할과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넷째, 조선에 대한 공사이다. 당시의 조선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서 청국과 일본의 내정간섭과 함께 외세의 침입에 따른 많은 대·내외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비록 조선국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동양의 뿌리 깊은 민족으로서 그 자부심과 진취적인 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우리민족 국가의 미래에 대해 상제께서는 벽찬 희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치는 상등국이 될 것임을 시사 하였다. 공사내용에 따르면,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린다”<sup>85)</sup>고 하였으며,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sup>86)</sup>, 장차 “소중화(小中華)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sup>87)</sup>고 하고,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sup>88)</sup>,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sup>89)</sup>,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 데가 없으리라.”<sup>90)</sup>고 하였다.

### 3) 사회 제도에 관한 공사

인계공사의 하나로서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주로 계층 간의 갈등 혹은 성적 불평등 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당시

85) 같은 책, 공사 2장 3절.

86) 같은 책, 예시 28절.

87) 같은 책, 공사 3장 18절.

88)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89) 같은 책, 예시 45절.

90) 같은 책, 예시 82절.

조선사회의 사회적 폐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에 지배귀족층과 피 지배 서민층의 신분차별이 엄격하였으며,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남·녀 간의 사회적 지위가 구분되었다. 여기에 상대적 불평등에 따른 계층 간의 대립과 원망이 발생하므로 천지공사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 폐단이 일소된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운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 주셨도다.<sup>91)</sup>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공사 이후로는 사회적으로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사라지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전에는 적자와 서자의 출신성분에 따라 사회적 진출에 차등이 있었고, 양반계층과 평민사이의 구분 또한 사회적 계층 간의 불만이 조장되어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구분을 말소시키는 것이 진정한 해원시대의 특징이 된다고 하겠다.

남·녀 간의 구분 또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남녀 간의 진정한 성적 평등은 사회적 해원을 위한 필수 전제요건이 된다 하겠다.

종도들의 음양 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 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 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91) 같은 책, 교법 1장 10절.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체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체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五만 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92)</sup>

즉 후천시대는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이다.<sup>93)</sup>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요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으므로 남녀가 각각 동등한 관계로서 한 쌍을 이루는 것은 곧 일음일양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부와 홀아비가 만나서 개가하는 것은 남녀관계를 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상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티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sup>94)</sup>고 하였으며,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夫)’라 써서 불사르기도 하였다.<sup>95)</sup> 또한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식록은 고르리니 만일 급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sup>96)</sup>라고 함으로써 앞으로 계층간의 차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4) 후천문명에 관한 공사

인간이 사는 총체적인 문명은 천지공사 이후의 후천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점을 이룩한다고 본다. 후천문명이 지향하는 다방면의

92) 같은 책, 공사 2장 17절.

93) 같은 책, 공사 2장 16절 참조.

94) 같은 책, 공사 1장 32절.

95) 같은 책, 교법 2장 57절.

96) 같은 책, 교법 2장 58절.



모습은 천지공사의 이념이 실현된 지상낙원을 말한다. 오늘날 사회적 인 현상 또한 미래의 후천문명을 맞이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으며,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종교와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등에 있어서 이상적 경지를 보게 된다고 한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윗글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공사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정치적 인 측면에서는 모든 화권이 열려 자신의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고, 형벌이 필요 없이 조화로써 창생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둘째, 경제적으로 보면 빈부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후천이다. 상제께서는 “내가 단식하여 식록을 붙여 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라고 하고,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 데가 없으리라.”고 하였다.<sup>97)</sup>

셋째,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번뇌가 없고 불로불사하는 장생의 시대이다. 이때는 또한 인준시대로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앤다’고 하였으며,<sup>98)</sup> 오로지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함을 얻는 시대가 된다고 하였다.

97) 같은 책, 예시 82절.

98) 같은 책, 공사 3장 8절.

넷째, 과학적인 측면에서 후천은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 극도의 편리함을 누리는 시대가 된다. 서양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는 천국의 것을 본딴 것이므로 창생의 편의가 된다고 하였으며,<sup>99)</sup>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운거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므로 어떤 용력술이나 축지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sup>100)</sup> 또한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고 하였다.<sup>101)</sup>

다섯째, 후천은 또한 천하가 한 집안이 되는 문명통일의 시대이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만국 창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써 물화상통(物貨相通)을 펼치심으로써 문명 간의 화합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sup>102)</sup> 선천에서는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는 폐단이 있었다. 따라서 상제의 천지공사는 각처 강산의 정기를 뽑아 합침으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선경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sup>103)</sup> 여기에 인간의 다양한 언어도 장차 통일된다고 하였다.<sup>104)</sup>

여섯째, 후천시대에는 자연환경 또한 무한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게 된다. 후천은 기본적으로 수·화·풍(水火風)의 삼재(三災)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라고 할 수 있다.<sup>105)</sup>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고 하였다.<sup>106)</sup>

---

99) 같은 책, 공사 1장 35절.

100) 같은 책, 예시 75절.

101) 같은 책, 공사 1장 31절.

102) 같은 책, 공사 2장 23절.

103) 같은 책, 공사 3장 5절, 6절 참조.

104) 같은 책, 교법 3장 40절.

105) 같은 책, 예시 81절.

106) 같은 책, 교법 3장 41절.

## 5) 병겁과 의통에 관한 공사

인계공사에는 후천시대가 맞이하는 화려한 모습이 예비되어있는 반면에 그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과도기의 상태로서 병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겁은 곧 인류 사회에 닥치는 미래의 참상으로서 하나의 종말적 상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다. 비록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상적 낙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제갈(諸葛)이 쏘아져 나 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환(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변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107)</sup>

이러한 병겁은 대규모적이고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어떤 특별한 약재를 준비할 수가 없다. 상제께서는 공사를 볼 때 “이제 온 누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모두 구출하기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 하며 크게 슬퍼하셨다.”<sup>108)</sup> 다만 병겁으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통(醫統)’이라고 하는 수단이며 이것은 창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상제께서는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쉰신 세 쉼레를 닳기면서 죽음을 뵈아 병자를 구

107) 같은 책, 공사 1장 36절.

108) 같은 책, 행록 5장 24절.

하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sup>109)</sup>라고 하여 의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통과 관련하여 상제께서 행하신 주요한 공사 중에는 ‘만국의원(萬國醫院)’을 세우는 일이 있다. 이것은 당시에 구릿골(동곡) 쪽에서 행해진 것으로 동곡약방을 짓고 많은 공사를 집행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상제께서 하루는 구릿골에서 밤나무로 약패(藥牌)를 만들어 패면(牌面)에다 ‘만국의원(萬國醫院)’이라고 글자를 새겨 그 글자 획에다 경면주사(鏡面朱砂)를 바르시고 “이 약패를 원평(院坪) 길거리에 갖다 세우라”고 공우(公又)에게 명하셨도다. 공우가 약패를 갖고 원평으로 가려고 하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 약패를 세울 때에 경관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 하시니 공우 여쭙길 “만국의원(萬國醫院)을 설치하고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앓은뱅이도 걷게 하며 그 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리라고 하겠나이다”고 아뢰니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시행하라” 하시고 그 약패를 불사르셨도다.<sup>110)</sup>

상제께서 세우신 동곡약방은 곧 만국의원을 상징하며 세계의 중심이 된다. 만국의원(萬國醫院)을 설치하여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앓은뱅이도 걷게 하며 그 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병겹도 만국의원에서는 치명적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병겹을 치료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실제로 상제께서는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재전주동곡 생사판단(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서 불사르셨다.<sup>111)</sup> 여기서 동곡약방은 곧 도술약국이며 병겹으로부터 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곳으로서 의통을 주관한다고 본

109) 같은 책, 예시 43절.

110) 같은 책, 공사 3장 35절.

111) 같은 책, 공사 2장 9절.

다. 그리고 이러한 의통의 핵심은 대병지약(大病之藥)으로서 안심(安心) 안신(安身)에 있다고 하였으며, 무도(無道)로부터 유도(有道)의 회복이 관건이 된다고 본다.<sup>112)</sup>

## 6) 기타

인계공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공사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첫째, 서울과 관련된 공사이다. “법(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萬方)에 펼쳐 나가는 것이므로 서울 경(京) 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쓰야 할지르다. 그러므로 경수(京洙)의 집에 수명소(壽命所)를, 경학(京學)의 집에 대학교를, 경원(京元)의 집에 복록소(福祿所)를 각각 정하노라”<sup>113)</sup>고 하여 서울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종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면서 ‘수륙병진(水陸竝進)’이라고 하고 남대문에 ‘천자부해상(天子浮海上)’을 붙이며 서울로 올라가는 공사를 보았다.<sup>114)</sup>

둘째, 10년 주기에 대한 공사가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벽력표를 땅에 묻고 나서 종도들에게 “모두들 제각기 흩어져서 돌아가라. 10년 후에 다시 만나리라.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니라”고 말씀하시니, 누가 여쭙기를 “40년은 10년이 아니 오니까.” 이에 상제께서 “40년도 10년이나 그것을 넘지는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두 돌려보내시었다.<sup>115)</sup>

셋째, 전쟁에 관한 공사이다. 상제께서는 “이 말세를 당하여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뒷날 대전쟁이 일어나면 각기 재조를 자랑하리니 재조가 월등한 나라가 상등국이 되리라.”<sup>116)</sup>고 하시고 공사를 보시었다.

---

112)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113) 같은 책, 예시 46절.

114) 같은 책, 공사 1장 17절, 18절, 19절 참조.

115) 같은 책, 공사 1장 22절.

116) 같은 책, 공사 2장 25절.

넷째, 무당도수라 하여 당시 고부인(高夫人)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치시며 “이것이 천지(天地) 굿이니라” 하시고 “너는 천하 일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일등 재인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고 하셨다.<sup>117)</sup>

다섯째, 태을주 주문에 관한 공사가 있다. 상제께서는 당시에 전파된 태을주를 아직 때가 이르다하시고 기운을 거두는 공사를 보시었다. 이어서 태을주와 김경흔을 쓴 종이를 약방 벽상에 붙이고 절하며 공사를 계속 보시었다.<sup>118)</sup> 주문은 이외에도 ‘이십팔장과 이십사장’이 있으며, ‘절후문’, ‘천지귀신주문’등을 사용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sup>119)</sup>

이상으로 천지공사의 실체를 중심으로 그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천지공사의 교리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IV. 천지공사의 교리적 의의

강세하신 강증산께서 구천상제로서 행한 천지공사의 교리적 의의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천지공사가 구천상제의 중심역사라는 점이고, 둘째는 창생구제를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점, 셋째는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향한 역사라는 점이고, 넷째는 새로운 신앙적 진리의 출현이라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7) 같은 책, 공사 3장 33절.

118) 같은 책, 공사 3장 28절.

119) 같은 책, 공사 3장 33절, 34절 참조.

## 1. 구천상제의 중심역사로서의 천지공사

천지공사는 강세하신 강증산께서 구천상제의 권능을 지니고 행한 대역사(大役事)이다. 그 범위는 전 우주적인 영역에 걸쳐있으며, 천·지·인 삼계를 망라하는 후천개벽의 공사이다. 이러한 활동은 전적으로 구천상제의 인세강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며 상제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구천대원조화주신이신 상제께서는 신미년(辛未年) 이조(李朝) 고종8년 음력 9월 19일, 양력 1871년 11월 1일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씨가(姜氏家)에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 강세하시니 존호는 증산(甞山)이다.<sup>120)</sup> 강증산 성사(聖師)께서는 당시 이조말엽에 극도로 악화된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도탄기를 목도하였으며 또한 구천상제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였다.

상제께서 비로소 광구천하의 뜻을 두고 주유천하의 길을 떠나신 해는 1897년 정유년(丁酉年)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갑오년(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겪고 난 후에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의 사건이 이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였다. 일반 민중들은 지배층의 가렴주구와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면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때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손길이 간절한 상태였다고 본다. 상제께서는 1900년 경자년(庚子年)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민생들의 삶을 경험하고 또한 새로운 개벽의 역사를 예비하였다. 대체로 상제께서는 전북 익산 이리를 거쳐 충남 논산에 사는 김일부를 만났으며, 이어서 다시 경기(京畿)·황해(黃海)·평안(平安)·함경(咸鏡)·경상(慶尙)도의 각지로 두루 유력하였다. 주유하시다가 함열(咸悅)지방에 이르러 ‘만인 함열(萬人咸悅)’이라 기뻐하시고, 내장산에 가셔서 시를 짓기도 하였

120) 『대순진리회 요람』, p.10.

다.<sup>121)</sup> 이 과정에서 상제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인(神人)으로 우러러 칭송받으셨으며 또한 민생들의 어려움을 구제해주시기도 하였다. 이것은 모두 상제께서 지닌 신력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상제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광구천하 광제창생을 위한 천지공사에 있었으며, 개인이나 한 지역에 국한된 부분적인 봉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인신(人身)을 지닌 상제께서 그 참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천지공사가 시작된 1901년 신축(辛丑)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천지공사의 역사는 1909년에 이르기까지 총 9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제께서는 당신이 지닌 신력으로서 삼계의 모든 원한을 풀고 후천선경의 지상낙원을 이룩하고자 전력하시었다. 이 모습은 범인(凡人)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제만의 고유한 능력이었으며 오직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것을 일컬어 상제께서는 광인(狂人)과 신인(神人)에 대한 비유로 당신을 묘사하였다.

상제께 김 형렬이 「많은 사람이 상제를 광인이라 하나이다」고 고하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거짓으로 행세한 지난날에 세상 사람이 나를 신인이라 하더니 참으로 행하는 오늘 날에는 도리어 광인이라 이르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122)</sup>

상제께서 공우에게 가라사대 「내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터이니 나의 말을 믿을지어다. 너는 광인이 되지 못하였으니 농관으로 행세함이 가하니라」 하시니라.<sup>123)</sup>

「세상 사람이 나를 광인이라 이르되 광인은 일을 계획도 못하고 일을 치르지도 못하니라. 광인이라고 하던 사람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오리라. 나는 시골에서 농관의

121) 『진경』, 행록 2장 1절-5절 참조.

122) 같은 책, 행록 3장 34절.

123) 같은 책, 행록 4장 14절.



칭호를 듣되 군자나 천진으로 평이 있는 자를 택하노라』고 말  
씀하셨도다.<sup>124)</sup>

위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의 모습은 천지공사 시작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천지공사 이전에는 상제께서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신인(神人)’으로 칭송되었는데, 이것은 상제의 신력(神力)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라본 상제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천지공사가 시작된 이후의 상제의 모습은 개인이나 한 나라의 일이 아닌 천하의 일을 논하고 또 그에 따른 상제만의 고유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일반인의 이해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때는 상제께서 사람들로부터 광인(狂人)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시기야말로 상제께서 본연의 상태에서 일을 행하는 참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제께서 강제한 이유는 여러 신성·불·보살들의 하소연으로 인해 진멸에 빠진 세계창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인신(人身) 강제의 전(全)시기에 걸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심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때 상제의 천지공사 활동은 인간 강증산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져다주는 사건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강제하신 강증산께서 구천상제이심”은 바로 천지공사의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증산께서 39년간의 생애에서 보여준 상제로서의 참모습은 다름 아닌 천지공사가 그 중심역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역사로서의 천지공사

천지공사의 교리적 의의 중 하나는 이것이 곧 광제창생의 역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비록 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조말엽의 시대에 조선반도의 궁벽한 곳에서 탄강하였으나 그 역사적 대업으로

---

124) 같은 책, 예시 47절.

이룩하신 9년간의 공사는 곧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대역사(大役事)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미 ‘천지공사’라는 용어에 광범한 우주적 범위를 내포하고 있듯이 그 행하신 작업 또한 모든 창생의 구제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천지공사의 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의례적인 행동들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한 표면에 머물지 않는다. 상제의 천지공사는 불가시적인 신도(神道)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되는 원리이다. 이것이 곧 삼계공사라고 하였다.<sup>125)</sup>

상제의 천지공사는 하나의 시·공간적 틀 내에서 진행되었으나 그 상징적 가치는 영원·무한한 세계를 향한 특성을 지닌다. 상제께서는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라고 하고,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고 하여 천지공사가 전적으로 신도(神道)를 근본으로 한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26)</sup> 여기서 신도는 형이상(形而上)적인 세계로서 어떤 물질적, 시·공간적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 신도는 현상세계와는 달리 불가시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도는 현상세계의 이면에서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본체로 작용한다. ‘인사(人事)’ 또한 하나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신도가 정해짐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변화되는 세계이다. 신도의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인사는 새 기틀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상제의 천지공사가 포괄하는 범위는 전 우주적인 것이므로 특정 시·공간에 한정시켜 공사를 바라보면 구천상제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비록 조선반도 내에서 행해진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천지공사의 속성은 시·공간의 한계가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인류와 창생을 포괄하는 전범위적인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125) 같은 책, 공사 1장 3절.

126) 같은 책, 예시 73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127)</sup>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로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 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sup>128)</sup>

내가 보는 일이 한 나라의 일에만 그치면 쉬울 것이로되 천하의 일이므로 시일이 많이 경과하노라.<sup>129)</sup>

위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공사는 모든 천지신명이 모여서 상제께 하소연한 결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곧 천지공사가 보이지 않는 신명계를 포괄하고 또 이러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천지공사는 자연 사물들에게도 소망하는 일이었다.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로 마치고 나오니 각종 새와 짐승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겨 맞이했다는 내용은 앞으로 천지공사가 자연계까지도 포괄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어서 천지공사가 9년간 지속됨으로써 천·지·인 삼계에 걸친 장구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한 나라, 한 개인의 일이 아닌 천하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전 우주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신도를 조정하는 일이므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상제의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로써 강제하

---

127) 같은 책, 공사 1장 9절.

128) 같은 책, 행록 2장 15절.

129) 같은 책, 교법 3장 7절.

신 강증산께서 천지공사를 단행함으로써 그 본성이 구천상제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겠다.<sup>130)</sup>

### 3. 인간과 세계의 새로운 창조 역사로서의 천지공사

천지공사는 어떠한 관념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활동으로서 이후의 후천세계를 주도하는 상제의 권능이 발휘된 역사이다. 이런 점에서 천지공사의 교리적 의의는 상제에 의해 새롭게 지어지는 후천세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데서 또 하나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천지공사에 의해 이 세계는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고 이어서 인간과 세계의 모습 또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상을 지님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sup>131)</sup>

위의 전경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의 천지공사는 삼계개벽공사

130) 같은 책, 예시 9절 참조.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131) 같은 책, 공사 1장 2절.

이다. 이러한 개벽의 특징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현상을 본다는 점에서 창조적 가치를 담고 있다.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라고 한테서 천지공사의 고유성이 드러난다. 또한 개벽을 주도하는 자는 바로 상제이시므로 천지공사에는 이미 그 위대한 권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sup>132)</sup>고 하였듯이 상제께서는 개벽장으로서 천지공사를 통해 그 권한과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상제의 천지공사가 지닌 창조성은 그 역사적 활동의 측면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다. 즉 “상제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도수로써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어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 놓으셨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게 되니라.”<sup>133)</sup>라고 하여 천지공사가 일종의 ‘뜯는 공사’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뜯는다’는 것은 그 이전의 것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천지공사란 곧 하늘과 땅을 상제께서 뜯어고치는 활동으로서 공사이후에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탄생하는 것이다. 선천 우주의 묵은 환경이 후천 우주의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후천은 선천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풍요와 조화의 세계를 예비하고 있다. 상제께서는 광구천하하심에 있어서 “판안에 있는 법으로써가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써 삼계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니라”고 하였다.<sup>134)</sup> 이것은 천지공사가 여타의 사상이나 제도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것으로서 그것이 지닌 창조성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

132) 같은 책, 공사 1장 1절.

133) 같은 책, 예시 16절.

134) 같은 책, 예시 4절.

#### 4. 새로운 신앙적 진리의 출현

천지공사의 대역사를 통해 시사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인류가 경험해 왔던 선천의 부조리와 모순을 넘어서 대화합과 평화의 후천세계를 맞이한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천지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새로운 삶을 예비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의 인류가 자인(自認) 자각(自覺)해야만 하는 진리적인 내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천지공사는 그 자체로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오늘의 인간과 세계가 여기에 입각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음을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인들은 성·경·신을 요체로 삼아서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회의 모든 인사(人事)가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진리임을 깊이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3.1.12><sup>135)</sup>

위의 『대순지침』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는 곧 천지공사로 나타났으며, 오늘날의 모든 사회현상은 그 진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지공사는 선천과 후천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천지공사의 참된 가치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는 절대적 원리가 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천지공사의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 일단 천지공사의 대체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

---

135) 『대순지침』, p.32.

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136)</sup>

위의 글에서 파악되는 천지공사의 정의는 곧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진행된 천지공사는 구천상제에 의해 9년간에 걸쳐서 완결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으로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 조정산께서는 1925년 무극도를 창도함으로 인해 그 신앙적 진리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당시에 도주께서 선포하신 교리에 의하면 ‘종지(宗旨)’는 곧 대순진리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순진리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다.<sup>137)</sup> 이 열 여섯 자의 진리는 천지공사의 정의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천지공사의 대체를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제의 천지공사에 대한 이해의 방법은 모두 이러한 종지의 이념을 길잡이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후천세계의 실상은 오늘날 대순진리회의 종지를 통해 잘 표방되고 있다고 본다. 종지에는 후천시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철학과 이상사회, 이상적 인간, 새로운 윤리 도덕, 종교관 등이 내포되어 있다. 모든 사회현상 일반에 대해 이러한 종지의 이념이 두루 관통한다고 보는 것이 대순진리가 지닌 본성이다. 따라서 천지공사의 중요한 교리적 의의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이 천지공사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신앙적 진리가 출현하였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실천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136) 『전경』, 공사 1장 3절.

137) 『대순진리회 요람』, p.8.

## V. 맺음말

이상으로 구천상제론의 시각에서 본 천지공사의 실제와 교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구천상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대순종단의 신앙 대상으로서 그 위상이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상제의 존재를 실감하고 그 구체적인 역사와 근거를 들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핵심항목으로서의 ‘천지공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강세하신 강증산께서 구천상제이심’을 올바로 자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대순종학 연구의 주된 과제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연구선상에서 먼저 그 기본 시각을 제시하고 이어서 천지공사의 실체를 논한 뒤에 그 교리적 의의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다.

천지공사의 실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삼계공사라는 전체하에서 천·지·인 분류법을 채택하였으며, 각각 『전경』에 기록된 공사 내용 전체를 분류 요약함으로써 그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분류와 서술은 너무 거시적이고 단순나열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역사적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향후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추가적인 연구로는 본 논문의 거시적 한계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의례학이나 상징론과 같은 관점에서 세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종합적 견해로서 필자는 천지공사가 크게 네 가지 선상에서 교리적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먼저 천지공사를 강세하신 강증산 구천상제의 중심역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천지공사는 광구천하 광제창생의 역사라는 점, 그리고 천지공사는 인간과 세계의 새로운 창조역사라는 점, 아울러 새로운 신앙적 진리가 출현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근거로 하여 오늘날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은 그 역사적 실재와 함께 영원 무한한 진리로 존재하고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주역』  
김태수, 「천지공사에 나타난 의례적 성격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김홍철, 『증산교사상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0.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대구: 가톨릭신문사, 1988.  
박상래, 『한민족의 진로인 증산교좌표』, 서울: 경인출판사, 1986.  
배용덕, 임영창 공저, 『증산신학개론』, 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82.  
염미양, 「증산의 신비체험과 천지공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유병덕, 『한국신흥종교』, 서울: 시인사, 1986.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2.  
이상호, 『대순전경』, 상생사, 1929.  
이정립, 『대순철학』, 서울: 증산교본부, 1947.  
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홍 우, 『동학입문』, 서울: 일조각, 1974.  
郭沫若, 『儒道天論發微』  
\_\_\_\_\_, 『青銅時代』, 臺北: 文治出版社, 1945

▪Abstract▪

## A Research on Doctrinal Significances and Analyzing Chunji-Gongsa Focused on View of Guchun-Sangje Theory

**Lee Gyung-won**

Daejin University

The most fundamental topic of the Daesoonjinrihoe faith is how the human Kang Jeongsan can be supreme god(Gucheon-Sangje). This statement is based on the Great Work of Sangje that is called Chunji-Gongsa. The documents on Chunji-Gongsa is founded in Jeongyung, the scripture of Daesoonjinrihoe. But it's not easy for us to understand it because of its holistic and symbolic expression. There are duplicate phrase of Chunji-Gonsa in one scripture or included it in another chapter that is not Chunji-Gongsa as well. So we need to analyze it more systematically and understand it reasonably. Especially in order to write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use the view of Guchun-Sangje theory. This article is composed with three chapters except preface and conclusion. The first one is the relation between Chunji-Gongsa and Guchun-Sangje. The second one is to analyze Chunji-Gonsa. The third one is the doctrinal significances of Chunji-Gongsa.

**Key Words** : Daesoonjinrihoe, Gucheon-Sangje, Chunji-Gonsa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1월 4일~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9일